

006 외대학보



위기

인터뷰1 - 김성민(상경·영양 4)

"나스닥은 큰 기침하면 코스닥은 감기가 준비해야 한다" 올해로 3년째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김군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취약함을 지적하며 얘기했다.

"아침에 신문 읽을때 미국 나스닥지수나 다우지수가 올랐으면 주식을 사면된다. 가장 기본적인 주식투자의 원칙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새내기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던 김군은 "경제는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실물 경제를 배워보고 싶어 주식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네트즌에게 잘 알려진 대학생 주식 사이트 팍스넷 커뮤니티를 시작하고 있는 김군.

"요사이엔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다.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고 있는지 낮에도 많은 글이 올라온다"는 김군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전업투자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군은 "주식 투자 한다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자신의 노력에 필요한 일입니다. 장당한 노력으로 돈을 번다면 그리 나쁘지 않죠"라며 되물었다.

그러한 그도 요사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투자를 투기적으로 하는 현상에는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옛날 일이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한주 당 14만원하던 새틀기술 주식이 2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주식시장 자체가 아주 불안한 상태인데, 팔자는 물건은 많지도 사자는 물건은 없다"며 자신도 주식의 불안정함을 일깨워줄 함께 얘기했다.

주식은 그 나라 경제의 지표라고 말하면 그의 모습에서 감자국을 찾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보게됐다.

박수용 기자

인터뷰2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 편집부장 이송규

1.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밖에 안되는 사람들이 나라경제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는 나머지 97%가 최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나라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한국이라는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2. 정부의 소외주주의적 해법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생각은?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에 파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 나라 경제의 두 근간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나미지 하나)은 반독점적 팔아치우려는 정부와 재벌단, 금융감독위원회는 반드시 '경쟁'에 나오게 될 것이다. 대우·쌍용자동차를 헐값에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에 팔게 되면 1만 4천명의 대우·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은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말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70만에 이르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할 것이다. 또다시 구제금융의 나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

고용안정은 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이니 다름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쫓겨나기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투쟁'으로 정부정책을 바꿀려는 것 말고 답은 없다.

3. 경제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 큰 과제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정책을 바꾸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다.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것(현재 법정근로시간 주 42시간)은 고용창출이라는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문화생활과 복지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미 선진 유럽 많은 나라에서 입증된 바 있다.

아울러 왜곡된 경제구조와 재벌구조의 '구조조정'은 일반화되어야 아니라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의 노사정위원회의 형태 아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경제에서의 자국민 확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막고 자주적인 경제를 만들어내는 일 또한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하는 숙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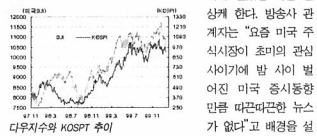
최호남 기자

한국중시의 미국동조화 현상의 원인과 본질

산업·금융 '미국의 손' 이 움직인다

"두두두 두~. 미국 다우 지수는 어제 000포인트가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 역시 00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요즘 모 방송사의 아침 뉴스(6시 뉴스)를 보면 미국 중시동향에 첫 소식으로 등장한다. 마치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일부 방송사들이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뉴스 첫머리에 올렸던 때를 연상케 한다. 방송사 관계자는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초미의 관심사이기때 발 사이 벌어진 미국 중시동향만을 따끈따끈한 뉴스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다우지수와 NASDAQ 지수 추이

국 주식시장의 종가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장 초반 분위기가라도 전달한다는 취지다. 신문업에서는 '지장 기반을 잃어간 서간신문들이 밤사이 발행된 미국 중시 소식을 제 대로 보도할 수 있어 의외로 시장기반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한국과 미국간의 '중시 동조화' 현상이 빚어낸 신종소문의 한 정면이다.

우리 경제는 해방 이후 미국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종속문제도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조화 현상, 종속현상은 '물지 마' 또는 맹목적 양상을 띠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대미 종속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역시 중시 동조화 현상이다. 한국 중시의 미국 동조화 현상은 미국 자본이 물밑으로 밀려들고 나서부터 구태했다.

지난 4월 14일 미국 중시 대폭락 사건은 우리 중시의 동조화 정도가 계량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얼마나 심한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 중시 폭락에 한국 주식시장은 4월 17일 93.03포인트라는 사상 최대의 폭락 추세를 맞았다. 물론 전 세계가 겪은 월요일(월렛 먼데이)을 걸맞았기는 했지만 유독 한국 중시의 하락폭이 컸다. 세계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폐렴에 걸린다'는 말을 새삼 되새기게 한 대목이었다.

물론 폭락사태 이후 미국 중시와 한국 중시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요인에 따른 것이다.

민간연구소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동조화 정도는 90%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코스지 지수(거래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간의 상관관계가 0.8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다우 지수가 1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주가도 0.82포인트 오른다는 것이다.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닥시장 간에는 동조화 정도가 이보다 더욱 심하다.

LG경제연구원도 1998년 5월부터 99년 11월까지의 미국 주가와 국내 주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93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도 미국 주가와 한국 주가간의 상관계수가 0.9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 이 같은 동조화 현상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에 해답을 찾고 있다. 이들은 산업과 금융 등 실물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경제시스템 자체가 미국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업은 신·구 산업을 막론하고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른바 신산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 산업은 핵심부품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산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해서 다시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는 수준이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재산업의 의존도도 심하다. 재산업은 우리 경제의 활로인 수출 기업산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수출액 중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를 넘어 1~3월까지는 20.7%로 잠정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수출비중은 지난 90년 20.8%에 비해 한참 낮아진 것이다. 무역에 관한 한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대폭 낮아졌던 수출의 미국 의존도가 다시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 대미 수출의 비중은 97년 한때 15.9%까지 낮아졌으나 지난해 다시 20%대로 올라왔다.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나라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IMF 위기를 극복한 요인 중 하나를 미국 경제의 활로에서 찾기도 한다. 10여개월째 장기호황을 맞고 있

는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는 제2의 IMF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 개방으로 외국인인 장을 좌우하는 큰손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국내 기관 투자자, 개인기관은 손해를 봐도 외국인은 한몫을 잡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보험·증권시장 할 것 없이 미국계 자본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의 미국화 속도는 더욱 빠르다. 경제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IMF 경제 실태조사에 이어가면서 급속히 미국화하고 있다. IMF는 우리 정부에 미국식 모델을 강요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기업 구조조정은 미국식 모델, 미국식 모델 속에서 미국 등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벤처를 기업경영력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내수에 치우치고 있는 벤처의 경쟁력으로서 한계가 있다.

고용모델 역시 미국식 모델을 따랐다. 경영부터 고용은 제까지 모두 미국식 모델을 지를 잡고 있다. 세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 역시 세계 경제의 한 측면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식 모델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외국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비판했다.

삼척지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동조화 현상은 훨씬 크다. 재경부가 지난 4월 17일 주가폭락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국 중시와 미국 중시의 다른 점을 조목조목 찾아냈다. 그러나 기관과 개인기관의 반응은 냉랭했다. 정부 관계자는 "삼척지 측면에서 이렇게 심할지는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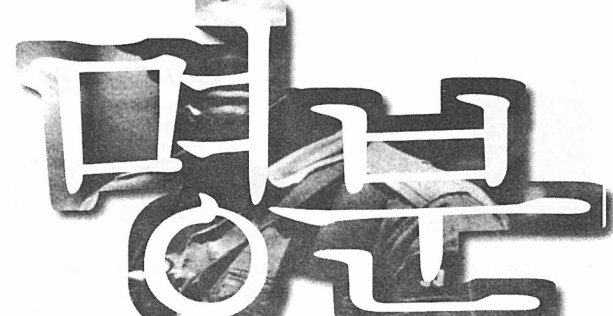
미국식 모델만 강요한다면 불평불만을 낳은 기업들 역시 이제는 미국식 경영모델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쫓아가지에 급급하다 보니 미국식 모델의 한국화는 염두도 못낸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달러화가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식 모델을 좇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원의 토도 없고 기술도 부족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다. 뚜렷한 대안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결국 한국 경제의 홀로서기와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하권
(강원신문 뉴스퀘어 경제부 기자)

그러나... 이런 결정해야 합니다. 명분과 실리, 그 무엇보다 미국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북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안보비용을 절감하여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국방부의 '북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 중에서 -

그리고... 현실

주한미군 사령부는 54년간 10만건, 하루평균 6건씩 벌어지는 주한미군사건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ㅇ씨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살인자에 대한 한국경찰, 검찰의 구속수사는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게 돼있다'고



미국 주둔비로 우리나라가 지불하는 돈은 일일이 800만에게 모두 일가리를 제공수 있는 3억 9천 9백만 달러이다.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미국인의 대부분은 법범과 불쌍한 출신으로 한국인을 미개인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천국으로 여긴다.

대학만 생애평

만나보가 벤처동아리 '시작'

대학관련 TV프로그램을 진단한다

“실패해도 밀질건 TV, 진솔한 대학을 담자 없어요”

우리학교에도 몇몇 벤처 동아리들이 다양한 활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벤처 한 말 뜻 그대로 모험이라는 뜻이다.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출발 해 모든 게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젊은 재기 하나로 불을 붙인 그들이 있기에 한국의 지식산업의 미래도 밝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우리학교 벤처 동아리 '시작(sazak)'의 회장 문연석(사양·영어 2, 휴학)군을 만나보았다.

현집자

1. 동아리의 창립 배경은

1년 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12일 정식으로 창립했다. 현재 활동회원 수는 8명으로 대개 00,99학번들이며 이들은 갖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맡는다. 그외, 각종 언어를 번역해 줄 활동가들이 있을 것이다.

2.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기존의 인터넷 정보매체계를 뒤집을 수 있는 독특한 모델을 구상중이다. '너름'이나 '야후'와 같은 한 분야만이 아닌 포털 사이트를 기획중이다. 하지만 그 방식은 현존하는 사이트들과는 180도 다를 것이다. '자입학'상 자체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중, 첫 번째로 기획중인 것이 '관공산'이다. 기존의 약도, 차비, 관광지도를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사이트들과는 차별적으로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해 그 장소에 실제 갔다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기획중이다. 이를 위해 실제 한지역 자료조사만도 1개월이 넘게 걸렸다. 또한 '외대'의 특성을 살려 20여개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런 작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의 사업은 외대 졸업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하리라고 본다.

3. 벤처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일단 벤처는 그 자체에 실패해볼 가치가 없다. 하지만 실패해도 밀질 건 없다고 본다.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한 아이디어 하나만을 가지고 시작할 일은 아니다. 확실한 사업모델을 갖고 뛰어드는 것이 중요하다.

4.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공간이나 기술적 지원의 문제다. 다른 학교의 경우 속속 생겨나는 벤처 동아리들을 위한 학교측의 지원도 많지만 어문계나 중앙인 우리학교의 경우 이런 동아리들의 지원은 전무하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동아리들의 첫 번째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도록 창업보육센터라든지 하는 공식적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 실제로 1년전 처음 벤처를 기획하고 여기저기 알아 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경험이 있다.



TV, 진솔한 대학을 담자



지난 17일(수) 서울 배움터에서 KBS1시터지코디 퍼말 녹화가 이루어졌다.

"여자들이 밥 많이 먹을 때는 그렇게 말들이 많은 겁니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7일(수) 서울배움터 노년극장에서는 KBS1시터지코디 퍼말 공개녹화가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여대 생활'을 찾았습니다. 그 녹화가 우리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한 여학생들이 연단에 올라가 장난 같은 정경유세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또한 학교 홍보도 의미있게 출연해 홍보에도 힘을 쏟은 자리였다.

대학생관련 프로그램들은 줄줄이 10여개가 넘는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쇼, 시트콤 프로그램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일회성의 가벼운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방송모니터 분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사자와 코미디를 접목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대체로 시사성이 없고 시사 문제를 오락화하기 때문에 중대한 시사 문제가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전락해버린다는 점이다"며 비평을 한 바 있다.

대학관련 프로그램의 역사

이런 '가벼움'에 대한 조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대학의 모습을 다뤄왔던 역사에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지난 88년부터 방영된 '시터지'를 빼고는 '나루'가 그 전형이다. 실제로 드라마의 주인공은 평소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방학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학생이다. 이 당시 대학가는 반 군사독재 정권 투쟁으로 한창 술렁이던 때이나 드라마에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발흥이나 고민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학문적 관심이 부각되어 있다. 즉, 드라마 속 대학생은 격정적인 시투에 따르지 않으며 다분히 세마를 운운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계몽적인 드라마는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서자 대학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다양성의 이념이 강조됐다. 이에 '우리들의 천국'은 대학교수 아들 진수, 농촌출신 성대, 진수의 심수친 친구 은철, 80학번으로 대모주로도 활약하다가 다시 복학한 최성, 가짜 대학생 송이 등.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나 이후 등장한 '내일은 사랑'은 갈수록

시청률을 의식해 주인공들의 사랑과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다.

90년대 후반, 사회경쟁이 해소되면서 미팅, 대충, 술 문화 등 자본주의 태두리 안에서 인위하게 삽입하는 무리하면 존재로서의 대학생이 등장한다.

'남자세 여자세' 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고대신문 1346호 중에서)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는 아니다.

지난해(1999년) 7월 시작한 '대학가 리포트'는 광주 MBC가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하는 '뉴스 2000'이라는 보도 프로그램의 한 꼭지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가 리포트'는 광주MBC 보도부의 최영준 차장이 기획한 것으로 이 지역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학생들은 '대학가 리포트'를 통해 뉴스 취재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어, 산학협동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들은 아침형 선정·취재·가사작업은 물론 직접 리포트까지 하고, MBC는 촬영·편집을 맡아 주고 있다. 1분 30초 정도의 시간에 맞게 대학생들이 직접 이미지를 구성하고 기사를 작성해온 최영준 차장과 카메라 기자가 와서 학생들이 미리 생각해 온 화면을 촬영하게 된다. 물론 무조건 학생들이 찍어달라는 화면만 찍는 게 아니라 최 차장과 상의하고 조언을 들어가며 찍는다.

촬영을 마친 뒤 기사를 화면에 맞게 다시 한번 작성하고 MBC로 가서 편집하는 정면을 지켜보게 된다. 지금까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는 "최영준이 지킴이" "복합문화활동", 그리고 "고재 차주안 삼각" 등을 다루었다.

댓글달

지금까지 방송은 그동안 대학생의 이미지를 왜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정 이미지를 반복 재생되는 경우가 많아 대학을에 대한 전반적 시각을 어그러뜨렸다는 것이다. 진솔한 대학인물과 건장한 모습을 담아내는 카메라, 억지 웃음이나 생활 속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송문화를 기대해 본다.

문화부

생애평

통닭과 빨래비누(?)

"맛있게 드세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라, 이 신문 자에 싸인 건 뭐죠?"

방송은 시각, 학교와 통닭집에 통닭을 사러 갔다. 10분쯤 기다렸을까? 아저씨가 싸운 통닭 안에는 파란한 통닭, 시로 신문자에 싸인 네모난 통닭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심각 웃으며 "직접 만든 비누예요. 파는 물건이라고는 비교가 안돼요" 하는 아저씨 앞에 난 잠시 어리둥절했다.

통닭집과 비누사이의 연관 고리를 잡으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순간, 아저씨고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채식용으로 비누를 만드는 과정이 떠오른 것이다. 알차게 두른 아저씨가 옛날처럼 생긴 팔에 채식용유와 탄산소노트를 섞어 넣고 휘젓고도 끝까지 노오란 거저뿔의 빨래비누가 탄생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경험이 말이다. 기름기를 빼는 데 소이는 비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다뤄나나 선택적 면에서 기존 상품보다 뛰어나다는 광고도 받고 있다고 한다.

아저씨의 정성이 담긴 비누와 함께 통닭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 무척 뜻깊었다. 주는 입장에서 닭을 사러 오는 손님에게 직접 만든 기념품을 하나씩 선물하는 작업도 훌륭할 뿐더러 받는 손님에게 '몸으로 느끼는 환경교육'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또한 기름을 많이 쓰는 통닭집의 폐유들이 그 대로 강으로 흘러갈 경우를 막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이 글을 쓰는 내 책상위에는 작사각들의 매끈한 비누 두 개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비누 두 개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듯 하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이다.

문화부장 cedee98@hanmail.net

생각이

지각하지 맙시다

수업시간 시간 10분쯤 지났을까? 학과대 캠퍼스로 돌아와 아직 출석을 안받은 것을 알고 후후~ 안심하던 기억. 다들 몇분만 있었? 우리 여유를 갖고 싶어요. 5분 빨리 오면 그날 하루가 여유로워진 대요.

문화부

생태문화만

시작



지크 로제 지음
이탈리아 출판사 10,000원

니체 신드롬

이 책은 니체의 전기가 아니다. 니체는 많이도 아팠고, 그의 오랜 질병은 특징적인 면모를 지녔다. 그가 앓은 병력은 알기하기 어려운 정도로 화려하며, 고품의 극치의 한 표현이다. 니체의 깊은 시발부터 정신병에 걸리거나 1889년까지의 생애의 여러 사건을 축으로 니체의 작품과 그가 쓴 편지들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의 증언, 자료 등을 통해 임상적, 의학적으로 니체의 삶을 재구성해본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잔재로부터 어떠한 생의 이면을 발견하게 될까?

자신의 생애를 신화의 형식으로 혼동한 니체의 기질, 다른 말로 니체 인격의 특별한 특징에 대한 세밀한 추적을 통해, 가능하리만 우리는 '정당한 기질'과 '적절한 통찰'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변주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메리 파이 지음
모색 출판사 10,000원

또다른 나라

미국에서 노인과 그 가족 문제를 상담해온 심리학자 메리 파이의 (드라마 나리)(공경의 옮김, 모색 펴냄)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위한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강조한다.

가령 음악에 대한 태도를 보자. 노인들은 '배고픔을 해소할 충분한 양'을 중시하지만, 젊은이는 '감정적이며 다이아몬드'를 떠올린다. 전례미가 비뚤어진 시절을 산 노인들은 장거리 전화에 꽤 신경을 쓰지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 더욱이 차제 등 장점은 노인을 감자기 '인간이'로 만들 수 있다. 자라는 실례로 "문화적 기억을 잃고, 어떤 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짧아지고, '바로 지금'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또다른 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연결한다.



관점 지음
여성신문사 10,000원

이야기 여성사, 2

조국 독립운동에서 정치, 사회, 민주화 운동까지 역사의 한가운데 서서 치열하게 살았던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한 책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잔 다르프 정정화를 비롯해 가짜남자 정정화의 산구사 이태원 등 50여 명의 삶을 두권으로 나누어 생생하게 담았다. 최근의 인식로는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전례미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뜻과 한 삶이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외, 고 문익환 목사의 첫 책임길 정로, 석주산비 등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장한 어머니'들의 삶도 엿볼 수 있다.

인터넷



http://my.dreamwiz.com/zangter
인사동 장터신문

이 사이트는 오랜시간 정통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인사동'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다. 최근 인사동거리를 넓혀 고층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에 시민단체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던 일도 있을만큼 인사동은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기도 하다.

'인사동장터신문'이란 이름의 인사동 소식을 전하는 란, 우리 옛것의 역사를 알아 보는 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유물문화재들에 대한 소식을 알아 볼 수 있는 란으로 꾸며져 있다. 그외, 각 신문마더의 민생 견해도 가능하며 문화에 관한 기획연재 시리즈도 찾아 볼 수 있다.

만나보기-방북소설가 황석영

“다시 친구되려면 상대방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평북 기간 동안 느꼈던 점
이전 한미교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꼭 해놓고 지나가고 싶다.
코피 터지게 싸움을 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다시 화해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좋은 점부터 이야기하고 자기의 편협했던 점을 서로 사과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서로 전처럼 친해지고 신뢰가 생기게 되면 그때에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충고해서 고치게 하는 일이 훨씬은 순서일 것이다.
나는 내가 겪은 경험으로 하는 말이지만 국가보안법이 유엔에서도 지난 30여년 동안 폐기를 권고할 정도로 악법이 분명하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결함들이 되는 조항이 고무 탄압이 될 것이다. 사물의 진면목에는 명암과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한 편을 강조하여 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닐뿐더러 인간의 이성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조금이라도 좋게 평가하면 화합의 계가 되고 다치지 않으려도 나쁘게만 얘기하라는 것은 통일은 가능할 것인만큼 공존조차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문학의 특징과 우리 문화와의 차이에 대해
글쎄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지만

북한 문학은 처음부터 그쪽의 혁명과 건설에 기여한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 아래 지도되고 창작된 것이어서 우리쪽과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북에서 개인적인 자유를 아래 창작하는 일이 가능한다는 점은 의문이다.
평양을 비롯하여 각 지방마다 문학예술총동맹이 조직되어 있고 그 산하에 창작실과 출판 부서가 있습니다.
당에서 일정한 창작물의 과제를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면과 당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수평적인 행위에 관한 작업들은 4.15장악단 같은 특수한 집단이 공동작업을 하기도 한다.
내가 보기에 북한 문학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은 오히려 일반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다룬 것들이다. 인민생활을 보다 더 나쁘게 하려는 여러 현상에서의 작업이며 인간관계, 부정적인 면과 긍정 요소의 갈등, 사회주의를 정제시키는 여러 패턴과 모순에 대한 지적 등으로 좀처럼 적으로 또는 교묘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제는 노동계급에 대한 묘사들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가정생활이나 사랑이나 우정 등을 다루기도 한다. 단조롭기는 하여도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실용적도 있었고 복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작은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난다.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문학장르와 문학은 무엇인가
북한문학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상교과'와 '봉송식'인 것 같다. 중장년층들은 아무래도 역사소설을 좋아하고 젊은이들은 당대 삶을 그린 생활 자전의 출거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훈규라는 시인으로 작가가 있는데 다른 본래문학작가들보다 당의 평가나 대중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다루는 것이 주로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치관을 깨우치는 계몽적인 것들이었는데 영화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각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각계에서 진행되는 남북문화교류에 대해 버리는 점
과거와 같은 일회성의 형식적인 행사나 남북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경쟁적인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방송이나 흥행사가 일의로 어긋나지 않게끔 꾸려 나가야 의도적으로 정치의식 있는 오락제나 교양적인 것들로 프로그램을 짜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첫째는 남한의 상업적 유행과 거리가 멀지지도. '인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아 품위와 격조에서 남한사회를 대표하는 '예술성'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교류가 길게는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의식성'이 담겨야 할 것이다. 쉽게 예를 들자면 너무 미국식으로 분할된 대중가요보다는 차라리 건전가요라고나 할까, 과거의 문동가요에서 비교적 대중적이고 문란한 것들을 고를 수도 있다. 너무 다른 음식은 오히려 먹지 않고 뱉어내게 되지 않는가.
통일에 대한 견해와 남북정상회담에 버리는 점
이미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의 민중이 견고한 회색을 치르면서 얻어낸 통일 방안과 남북한의 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내도록 하느냐에 있다. 그것은 남한의 일시적인 정권의 힘으로는 어렵다.
바로 우리가 해야만 한다. 우리가 벌여나갈 평화운동의 내용에는 세계적인 연대를 해나감에 있어 그 중에서도 미국의 양심적인 시민 세력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남북연합을 논의하는 타협을 몇 년 안에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평화체제의 구축에 모아야 할 것이다.
전대기권 공동기자단

현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북돋아줄 수 있어 오르고 있고 정권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 분단을 청산하고자 하고 있다.
민간인들에 의한 자주적 남북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닦은 소설가 황석영 선생. 그를 만나 방북 경험과 북한 문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인이 외대인에게

용인배움터 무역학과 '샐터'

이재욱 (경상·무역 2)

샐터가 첫 발을 내딛던 시대는 80년 5월 광주에 배아픈 상처가 지배하던 암울한 군부 독재 시대였다.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 내에 군부 독재의 파수꾼인 전투경찰들이 상주하며 젊은 청춘들의 눈과 귀를 막고 숨통을 막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한 시대였지만 진실은 갈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목소리들은 이어졌고, 무역과 내에서 뜻을 같이 하는 86 학번 김근태, 이병구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87년 6월 민중항쟁이 전국을 휩쓸고 7·8월 노동자 대 투쟁이 전개되던 숨겨진 시간들 속에 샐터는 실천하는 양심으로 강의실이나 책상 앞에서야 아니라 거거리에서 우리사회를 가슴으로 배워나갔다. 이것이 바로 샐터의 기본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대학 내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맞서 학우들을 학원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우려는 학생회와 강사와 발전에 위해 자기 역할을 다하였다. 무역과의 일에서부터 총학생회까지 그 사람이 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리만 발 벗고 앞장섰다.
그러나 무엇보다 샐터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샐터 회원간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이었다. 또한 이 땅의 소외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샐터회원들은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샐터의 이름 앞에 있는 '샐'과 '터'의 공동체라는 말을 이를 한미교도 반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샐터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학회 커리큘럼의 다양화를 통한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다.
특히 바뀐 사회과학 학과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주제를 찾아내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을 그때마다 다루었으며, 답사의 기행 등을 통해 세미나식 밖의 현장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였다.
거거리 준비 또는 모든 학회원들이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샐터는 단순한 지식의 일방적 주입을 위한 학회가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또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학회이다.

서울배움터 반미문화제

반미로 모아진 열린공간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나라 미국(美國). 5·18을 맞아 학내에서도 현재에 있어 미국의 위기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바로 지난 18일(목) 서울배움터 붉은 광장에서는 '외대문제갈라제(외대문물) 주위의 '반미 문화제'가 그것이다.
90년 2학기 외문열이 정식인준받은 이래 처음 갖는 학내 문화제인 이번 행사는 외문열 신하 중앙 율동계 신배, 외대종교문화연합, 외대노래 창작단 창원을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외문열과 연대하고 있는 고려대 노조와 연세대 반미당을 시지, 이어 신배의 율동공연이 이어졌다. 문화제 본미는 총 3막으로 이루어졌는데 1막은 미군간첩살상 관련 집계곡, 2막은 5·18 노래곡, 3막은 주한미군범죄를 형상화한 잡색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3막의 잡색곡은 출연자들의 사실감 어린 연기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동투전에 서 피사당한 윤금이 여인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이 극은 순진한 시골처녀이던 윤금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동투원까지 떠돌아다니고 되고 결국엔 미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외문열도 고통도 양궁주도 없는 좋은 세상 만들때까지 나는 그렇게 갇혀있을 나부끼며 우리를 가슴에 살아있었다'라는 절절한 내용의 '동투원' 끝이 시 낭송을 끝으로 1시간여의 문

화제는 막을 내렸다.
비록 시간이 짧고 출연자들이 많지 않아 매끄럽지 않은 진행도 엿보였지만 열린공간에서 동네 주민들과도 함께하는 등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연수(주부, 30세), "아이들이랑 같이 보았는데 자연스레 역사 교육도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외문열 외담 함태민(동양·일본어 4학년), "반미라는 정서적 요구에 맞추어 학내에서 호응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쉽게 다가가는 면에 주력했는데 그 점은 성공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문화부

외대

본보 외대인 외대문제에 관한 학회 회원들의 취재 기사를 위한 학회 소개를 위하여 학회 회원들의 취재 기사를 5월 20일(목)까지 보내주시고, 전화: 서울 02-961-4152, 용인 0335-330-4129, 8시(월, 화, 수, 목, 금) 02-961-4152, E-mail: oedapress@hanmail.net

외대학보

서울 목요음악반 음악감상회 열려

목요음악반이 오는 25일(목) 대학원 소극장에서 스물 번째 정기음악감상회를 연다. 조수미의 음악세계를 주제로 이탈리아 오페라, 한국 가곡, 종교음악, 크로스 오버 등 네가지 테마로 꾸며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조수미의 인턴뷰도 직접 촬영,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가곡 부문에서는 브람스, 그리그 금강산 등 낯익은 곡이 선정되었고 크로스 오버 부문에서는 오즈의 마법사 같은 흥겨운 곡도 들을 수 있다. 행사는 준비한 김은표(상경·경제 3) 군은, "대중적인 곡을 통해 고등 음악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조수미의 음악세계

공연 일시: 5월 20일(토)~21일(일) (월, 월)
회: 수목요일 8시 금요일 4시, 토요일 4시, 일요일 4시
공연장: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입장료: 1층(지정석) 15,000원 / 23층 12,000원 / 학생 10,000원
공연예매 및 문의: 1588-7880

외대인 여러분은 학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습니다 - 첫번째



여기로 신청하세요
서울) 961-4151 외대신문사
961-4152 학보 학생기자실
용인) 0335-330-4112, oedapress@hanmail.net

배달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커피한잔에 학보를 읽고 싶다”
“군대간 그 선배, 학교가 그리울텐데...”
“타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생각나네”

주문만 하십시오

외대학보 철거방은 독자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민족자주권
외대학보

Om kriget i Vietnam

[illegible]

사하고, 때는 머서
사망까지 이끌어다 사람을 비워줘요.
관방의 바람 속에서 죽어 가는 사람들은
그제야 수직처럼 팔라다의 움직이는 숫자지도요. 지금까지
네바다에서 2백만 명이 죽어갔네요.
여가없는 사회의 이유 물론
죽는 일 없지요. 지금 스페인
감전
사람 많이 죽이진 않고요. 뭐 어쨌든
어떤 나라요. 우리 나라에선 아무도
전혀 그런 일을 자기가 전쟁하는 일 따윈 없죠. 아무도
그런데로운 자원을 위반당하고
우리 말이판단으로 구해 버리진 않아요.
16세기에는 네바다에 없었죠.
여진 제가 천천히 있었어요.
문 1965년 3월이었어요.
전반면 나타났다
잔인한 이라크군의 전쟁판에선 정정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참고해봐도 죽지 않을 작은
순순 대동령 사신에선
눈은 눈들이 대동령은 저에서
대리까지 났죠. 하늘같이 한 세상애
다처럼 내려요.
다 많이 죽어가는데, 더 많이 정정되네요,
사건은 또한 허탈하게 보일 때까지,
정부는 참 봐에선 제 죄 배를 바꾸는 발에,

번역 후기: 1939년 스웨덴 룬드에서 태어난 에란 손네비(Gran Sonnevi)는 1960년대 중반 일련의 정치적 좌파 참여서 발표로 유명한 스웨덴 현대 시인이다. 이 시는 그의 대표작으로, 베트남전이 가속화되던 1965년에 발표되었다.

친한척인 스웨덴의 저를을 보고있고 있는 시인에게 전해지는 베르나트 전의 "베르나트"는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 세계를 가리키지만, 전쟁의 진실과 독일 초창기대 미국에 의해, 폭력과 전쟁이라는 사실(전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모른다. 진실과 진실 속에서 보이는 아이의 진실인 일이고, 사람의 죽음이라는 인간 기계적인 통제 속에서 끔찍한 무덤으로 보내지는 아이의 지극히 않았다. 전쟁을 뒤따라 오는 '복합'을 통해 전쟁의 나락이 끔찍한 현실의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내리고, 그 나락은 눈을 볼 수 없는 "씨늘"과 이글거리는 무성히 세상을 비추기만 할뿐이다.

강대국들의 더러운 전쟁"이었던 베르나트 세상은 우리처럼 단순한 세계가 아니다. 베르나트 전이 전에 아이 한사람으로 대표되는 자족한 수치를 지우었으며, 여전히 수치의 상징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시민의 삶을 위협, 이 세계는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짧은 '눈'에 가려졌는가?

번역: 이유진
(서양·스칸디나비아어 3, 휴학)

코메디와 멜로, 동전의 양면을 간직한 수작

흔들림 기사는 두 개에서 여섯 개를 포함한다. 그런데 보도에서 그도 할까 '한바와'와 '두바와'를 보면서 가졌던 어떤 원만한 느낌은 오히려, 그런데 그때 때에 어린 나이에 있었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이 영화 '조시버'를 볼 때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것이 느꼈다. 단순히 눈앞에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갖가지 생각은 없었다. '나야마 무치코'나 '런데타이'를 볼 때도 느꼈던 느낌과는 달랐다. 물론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영화는 건조하다. 어떤 편집자의 느꼈던 것이 진 해. 이 영화는 액션이 없는, 예전 코미디만 있다. 멜로만 있고 다 가버린 것만 영화였다. 그런데, 그리고 다 다채로운 다른 영화와 라는 질문에 명확히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건조하고 단순한 스타일때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문장일까...

조금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고 나고, 어찌 속에서만 있는 것 같고, 잔혹한 신인연이 펼쳐진다. 이 영화 멜로가 아니라 생경하게 가버린 배신을 볼, 이것은 어떤 다른 영화인 이 영화의 스타일로 편집한 상영관계에 익숙 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스타일은 쓸데없는 것을 빼고 일관한다. 모든 것을 잃어 버린(한편의) 나오토. 모든 것을 지켰을 때, 잔혹한 가버린 나오토가 있는가

했다던 것이다.' 물, 밥만 알아먹을지... 그 또한
음식을 어느때 배우고 쓰러진 상황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 몸, 의용한...' 그러나 낯
있는 총, 색, 혁명적...

소니타에겐 소니타 코디나였던 몸 슬프
이 출사되는데 표현은 아니었지 않고...
매우 인내심... 같이도 아예... 모든 열
가 어려웠지만 앞에서는 매우 낙관함. 이
그렇게 할 때는 모순적인 게 아니다. 두의 삶
이 지냈던 것 같다. 다케시는 이전의 영화화
로 소니타에게서 동전의 단면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잔혹하여 어둠의 수도에서부터 철
이 달렸는지 장난감? 아니면 보여주고
한 개인의 인생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주권
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통치권자를 그
그렇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성도 한미야 오부
의 외양까지 순한 소년의 표정까지... 때로는
스케줄테이션으로도 어떤 주인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은 여자로 결코 나타
않다. 다케시가 인물들의 면 미를 탐하고 있
다. "내가 하는 코디나는 다른 말로하면 폭력
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떤 "무엇인지 돌
게 개구려와 의 일찍 실행한다. 술자리에
분위기를 위한 몇 친구 같은데. 한 친구가 화
남게 매우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이란
전 그 개인 자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illegible]

김연수
(사회·신방 4)



백운터에 아이들이 나타났다. 노랑, 주황 색색옷을 똑같이 차려입은 꼬맹이들이 언니, 오빠들의 손을 잡고 마냥 즐겁다. 형아 얼굴을 향해 던지는 물풍선 던지기, 일가루속에 숨어있는 사탕 찾기, 과자 따먹기 등 모든 것이 신기한가 보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잠시나마 미래에 대해 미안한 불안감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오늘은 나도 동심하고 싶다.

-침동이 사랑회 주최로 열린 외대나들이에서-

최현정 기자 skydawn21@hanmail.net

